

2024년 4월 14일 통권 제24권 15호

히브리서(Hebrews) 10장19-20절

# 휘장을 찢으시다

“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”

A Church that shines like the Stars



2024표어

성령을 따라 행하라

Walk by the Holy Spirit

(갈5:16)

경배와 찬양  
Praise & Worship

다같이

찬송  
Anthem

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(찬9장)

기도  
Prayer

이은환 목사 (영광)

찬양  
Praise

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
여호사밧 찬양대

교회소식  
Announcement

광고

성경봉독  
Scripture Reading

히브리서(Hebrews) 10장19-20절

설교  
Sermon

휘장을 찢으시다  
정지웅 목사

찬양  
Hymn

내 평생에 가는 길 (찬413장)

축도  
Benediction

임용우 목사

주일예배

오전 09:00 예배

오전 10:45 예배

오전 10:45 Elementary Worship

오전 10:45 Pre/K Worship

오전 10:45 Youth Worship

오전 09:15 EMWorship 1

오전 10:45 EMWorship 2

\*현장 예배 오신 분의 헌금은 본당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

\*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 예배 전후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



## 환영합니다

워싱턴성광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

### 교회소식

#### 1. 선교세미나

- 일정: 4월28일 (주일), 오후3시
- 문의: 박태욱 선교사역원장 703-599-7849

#### 2. 헌아식 신청

- 일정: 5월5일 (주일)
- 대상: 5세 미만 자녀
- 문의: 송희선 집사 703-862-8817

#### 3. VBS 조기등록

- 일정: 6월24일(월)~28일(금)
- 조기 등록: 4월7일~4월21일, 홈페이지(등록비 \$35)
- 문의: 송희선 집사 703-862-8817

#### 4. 성광이야기 <우리는 동역자입니다>

- 문의: 이영순 전도사 703-732-0114

#### 5. 교회 역사 자료 수집

교회의 역사 관련 단기선교 사진, 영상, 주보를 수집합니다

#### 6. 환경미화

교회 외부 환경미화가 4월 20일(토) 새벽예배후에 있습니다

## 출석 및 헌금 통계

\*현장출석

1부	139	EM	135	청년	31
2부	261	Children	99	Youth	72
수요예배	128	토요일예배	125	헌금 총액	\$80,545. <sup>66</sup>

## 비전센터 건축 헌금

\*1구좌(\$5,000)

약정 목표 금액	600 구좌	현재 약정액	\$4,249,018. <sup>72</sup> 850 구좌	건축 헌금액	\$2,095,341. <sup>16</sup> (현재)
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교회 셔틀 안내

일반 차량 운행 팀장: 윤석상 안수집사(571-353-5752)    학교 셔틀 운행 팀장: 김용현 장로(714-883-6980)



# 선교현황 (파송27개국 96명 / 협력 28개국 59명 / 12개 협력단체)

목장	목자	국가	선교사	모임	목장	목자	국가	선교사	모임
힐링	이태수	대만	전아브라함	4/21	생물	진수연	루마니아	박창수	4/14
은혜	홍덕기	일본	배찬식	4/17	비전	문희란	탄자니아	조강식	4/21
하늘	강신호	일본	유정훈	4/21	한나	이정임	루마니아	김유정	4/14
회복	구재현	네팔	박재면	4/21	겨자씨	김용현	케냐	최동훈	4/20
소망	윤태용	캄보디아	정중찬	4/28	영광	이은환	우간다	이기진	4/14
동행	장영철	캄보디아	장진기	4/27	코카브	신용식	르완다	이상훈	4/21
방주	문신정	대만	김은우	4/14	쥬빌리	이종근	가나	구승희	5/4
빅토리	하수영	캄보디아	이상민	4/20	실로암	곽은식	콜롬비아	김혜정	4/14
포도나무	강훈규	미국	윤광진	4/20	중보	이상원	에콰도르	이철희	4/20
베네스다	문종광	인도네시아	김형건	4/14	인크라이스트	Jae윤	파라과이	김정훈	4/28
축복	윤세원	네팔	문광진	4/21	바디매오	김범석	페루	김중원	4/14
사인	안진원	인도네시아	함춘환	4/14	새생명	안병주	멕시코	민주식	4/20
라이프	나대형	미얀마	이경중	4/21	오션	윤석상	브라질	박지웅	4/20
태먼	송현철	말라위	김백만	4/21	실만한물가	임강호	도미니카	이철영	4/28
임마누엘	박태욱	탄자니아	최창식	4/21	이레	함지하	브라질	우은성	4/20
참빛	서상철	세네갈	최근식	4/21	등대	안용환	에콰도르	이천우	4/21
순종	임상기	탄자니아	윤봉석	5/5	미라클	김승환	볼리비아	황보민	4/21
복음	최영훈	말라위	박세우	4/20	좋은	김영진	에콰도르	장다슬	4/20
마라나타	위주호	남수단	이중호	4/21	오병이어	오택성	브라질	고현욱	4/20
기쁨	도유진	르완다	박준범	4/21	예은	서평강	파나마	고대권	4/21
이새	김현태	우간다	이상철	4/21	청년1	김나영	중국	이상만	4/14
만나	박광모	인도	김용대	4/20	청년2	이윤형	르완다	최황덕	4/14
부활	홍현철	인도	정정환	4/20	청년3	백종선	루마니아	박정민	4/14
별엘	양일도	인도네시아	정영명	4/14	EM1	Jeanie	Cameroon	Mary	주(격주)
지혜	오승원	캄보디아	김영익	4/20	EM2	Jonathan L	Ecuador	Ted	주(격주)
밀알	이영희	카자흐스탄	송장현	5/14	EM3	Tom	Indonesia	Jonathan	금(격주)
아름다운	변성희	카자흐스탄	김철진	5/12	EM4	Eric	Senegal	Victorien	월(격주)
백합화	한정금	태국	최승리	4/16	EM5	Stanley	중국	James	주(격주)
열매	이정은	몽골	김준태	4/21	EM6	Rachel	Cameroon	Mary	주(격주)
사론	희경Mendez	키르기스스탄	유상길	4/28	EM7	Eunice	Taiwan	Chris	주(격주)
주항기	이영미	태국	허기동	4/28	EM8	Paul	Bolivia	Jeremiah	토(격주)
평화	홍덕기	이스라엘	강태윤	4/14	EM9	Jin Nam	Taiwan	Chris	토(격주)
별빛	신중우	이스라엘	강태윤	4/27	CM1	ChingFang	중국	최봉매	토(격주)
와보라	허길선	러시아	김도수	4/14	CM2	ZhangBin	중국	박일송	토(격주)

## 공동기도제목

- 2024년 성도들이 교회 표어 '성령을 따라 행하라'와 같이 매사를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
- 성광비전센터 건축이 좋은 시공업체로 결정되어 공사가 시작 되게 하소서
- "우리는 동역자입니다"(두란노 출판사) 출간되었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고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책이 되게 하소서

<볼리비아 황보민/재키 선교사>



## 협력단체

IMB, 한국침례해외선교부, 기아대책, SEED선교회, CG선교회, JAMA, KIMNET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, 하이패밀리,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, 밀알선교회, 평화나눔공동체

## 선교지 소식

**볼리비아 황보민/재키 선교사** 얼마전 멀리있는 아요래 마을을 좀 다녀왔습니다.가는데만 8시간 반, 이전에 몸이 안좋았을 땐 이러한 여행을 생각지도 못했는데, 이번에는 견딜 수 있었음에 여행 내내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.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느 소도시의 구행이에 자리잡은 "프레스 데 마요"라는 이 마을은 한 이집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.이러한 비듯한 처지에 있는 아요래 마을들이 다 그렇듯이 이 마을도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빈 땅에 30여년전 무작정 들어와 지금까지 잘 버티어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.문명인들의 사고나 사는 방식을 모르는 채 그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, 스페니쉬 언어도 부족하고, 특별한 능력이 없이 허드렛일이나 하는 처지이고, 매사에 법도 없이 막무가내적인 이들의 생활방식이다 보니 일반 볼리비아 주민들에게는 무시 당하고, 또한 처리하기 힘든 골치 덩어리라면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.그러한 가운데 2022년 10월 1일 그 마을의 아요래 인들에게 일어난 일은, 그들에게 있어 너무도 큰 고동이었었고, 잊기에는 아직도 너무 짧은 세월이 아닌가 합니다.그날 도시에 사는 한 볼리비아 인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어느 괴한과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. 괴한의 칼에 의해 피를 흘리는 사건이었는데 사건진술에 있어 다치게 한 상대방이 아요래 인이었다고 말하는 바람에 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.순식간에 분노한 볼리비아 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트럭터로 아요래 인들의 집들을 마구 밀어붙이고, 집안에 불을 놓는가 하면, 어떤 이들은 이 어지러운 상황을 이용해 아요래 인들이 가진 몇개 안되는 소유물들을 탈취해 가져가기도 하면서 이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.나중에 경찰조사에서 아요래 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아요래 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.목조로 된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벽의 일부가 불타가까지 했었습니다. 놀랐던 것은 이에 대응하는 아요래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.그들과 맞먹어 싸우지도 않았고, 나중에 집을 싸 그곳을 떠나지도 않았습다.마치 소리 하나 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...그러면서도 절경이처럼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... 아니면 무엇을 믿는 가운데 마치 내면적으로 이와같이 소리치는 듯한,"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.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" (시27:1,3)사고 뒤에도 볼리비아 인들과 별로 나아진 상황은 아니지만 그들은 다시 그 재난의 터에 집을 지었고, 교회를 수리했습니다.그리고 주의 말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부디, 어려운 환경의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옵기를 소원합니다.

